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학생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조 영 선

중학생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조 영 선

인 준 서

조영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 기본심리욕구, 그리고 인터넷 중독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불안·회피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50명을 대상으로 간략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KS척도), 애착 척도(ECRS-R), 한국형 청소년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PSS 18.0과 M-Plus 5.0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그리고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회피 애착, 기본심리욕구, 인터넷 중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불안·회피 애착과 인터넷 중독은 기본심리욕구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불안·회피 애착은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각 변인들에 대한 직접 경로를 분석한 결과, 불안·회피 애착이 기본심리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기본심리욕구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안·회피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불안·회피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서 갖는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인터넷 중독, 불안 애착, 회피 애착, 기본심리욕구, 매개효과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 1. 인터넷 중독
 - 1) 중독의 정의 9
 - 2) 인터넷 중독의 정의 10
- 2. 애착
 - 1) 애착의 정의 12
 - 2) 청소년기 애착의 특징 13
 - 3) 애착의 유형 14
- 3.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설명하는 기본심리욕구
 - 1) 자기 결정성 이론 18
 - 2)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정의
 - ① 자율성 19
 - ② 유능성 20
 - ③ 관계성 20

4. 인터넷 중독, 애착, 기본심리욕구 간의 관계	
1) 애착과 인터넷 중독	21
2)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와 인터넷 중독	
① 자율성과 인터넷 중독	22
② 유능성과 인터넷 중독	23
③ 관계성과 인터넷 중독	24
④ 기본심리욕구와 인터넷 중독	25
3) 애착과 기본심리욕구	26

III. 연구 문제

1. 연구 문제 및 가설	28
2. 연구 모형	30

IV.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31
2. 측정 도구	
1) 간략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	32
2) 애착 척도	33
3) 한국 청소년 기본심리욕구 척도	35
3. 자료 분석	37

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1) 인터넷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	40
2) 주요변수들의 상관분석 및 정규성 가정 검증	42
2. 인터넷 중독 저위험·고위험 집단 간 관련 변수들의 차이	43
3. 측정모형 분석	
1) 측정변수들의 상관분석 및 정규성 가정 검증	45
2) 측정모형 검증	47
4. 구조모형 분석	
1) 구조모형 검증	49
2) 매개효과 검증	51

VI. 논의 및 제언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53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59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1
<표 2>	인터넷 중독 척도의 요인별 문항 구성 및 내적 일치도	33
<표 3>	애착 척도의 요인별 문항 구성 및 내적 일치도	34
<표 4>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요인별 문항 구성 및 내적 일치도	36
<표 5>	인터넷 이용에 관한 일반적 특성	41
<표 6>	주요변수들의 상관계수, 왜도, 첨도, 평균, 표준편차	43
<표 7>	인터넷 중독 저위험·고위험 집단 간 관련 변수들의 차이	44
<표 8>	측정변수들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46
<표 9>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47
<표 10>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49
<표 11>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50
<표 12>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치	50
<표 13>	매개효과 검증	52
<표 14>	인터넷 중독에 대한 효과의 보고	52

그림 목 차

<그림 1>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2차원 4범주 애착 유형	15
<그림 2> Brennan, Clark와 Shaver(1998)의 애착 2차원 모형	16
<그림 3> 중학생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모 형	30
<그림 4> 측정모형의 요인계수(표준화계수)	48
<그림 5> 최종모형의 경로계수(표준화계수)	5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4년 6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그해 13만 8천명이던 인터넷 이용자수(아이뉴스24, 2004)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보급과 함께 2013년 7월 기준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은 전년대비 3.7%p 증가한 82.1%이고, 인터넷 이용자수는 전년대비 196만 명 증가한 4,008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특히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99.7%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10명 중 7명은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은 중요하다(71.0%)’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일상생활이 편리해졌다(70.7%)’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이렇듯 초창기만 해도 그저 신비로운 대상으로 여겨졌던 인터넷은 불과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보편화는 편리성, 다양성, 정보성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학업, 대인관계, 여가생활 등 생활전반에 순기능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 익명성, 탈개인화, 접근용이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과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다양한 영역에 역기능적인 영향도 동시에 미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을 들 수 있다.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2013)에 따르면 만 5-49세 인터넷이용자 중 인터넷 중독률은 전년대비 0.5%p 감소한 7.2%로 나타났고, 인터넷 중독자수는 전년대비 13만 6천명 감소한 220만 3

천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인구의 인터넷 중독률 및 인터넷 중독자수는 감소하였지만, 최근 5년 내 최초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0.7%로 증가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고위험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위험군 7.9%(중독자 수 55만 6천명)이 전년(중독률 7.5%, 중독자 수 49만 명)대비 0.4%p 증가하여 최근 5년 내 유일하게 증가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아동(만 5세-9세)의 인터넷 중독률은 7.3%로 전년(7.9%)대비 0.6%p 감소하였으며, 성인(만 20세-49세)의 인터넷 중독률은 6.0%로 전년(6.8%)대비 0.8%p 감소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2012년 인터넷 중독률을 다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10.7%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연령대 중 유일하게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특히 전체 학령 중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률이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8.6%)대비 3.1%p 증가한 수치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또한 인터넷 중독률이 가장 높은 학령이 전년도 고등학생에서 금년도 중학생으로 바뀐 것으로 보고되어(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인터넷에 중독된 학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의 저연령화가 심화되어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조기 개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건강악화, 수면부족, 성적저하, 가족 간의 갈등, 학교생활 부적응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폭력, 비행, 범죄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11). 최근에는 인터넷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이 팝콘처럼 튀어 오르는 강한 자극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현실 세계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아 현실에 무감각해

지는 현상, 일명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이라고 불리는 뇌기능의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다(헬스조선, 2013). 뿐만 아니라 디지털 치매라 일컫는 신종 증후군도 생겨났다(Manfred Spitzer, 2013). 이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뇌 기능이 손상되어 어느 순간부터 인지 기능을 상실하여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치매의 일종을 말한다(Manfred Spitzer, 2013).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하듯,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3년 통계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이 만5-49세의 전체 인구에서 79.1%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역시 73.5%가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실제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상담 1순위가 컴퓨터·인터넷 사용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특별시청, 2012). 이를 통해 현재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인터넷 중독률이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중독 실태 및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인 중학생 시기는 신체·인지·정서·사회적 측면을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적인 발달단계이다(Roser, van der Wolf & Strobel, 2001; 정다운, 2010). 특히 청소년들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가정 및 학교환경에서 본격적으로 학업위주의 경쟁지향적인 체계에 들어서게 된다. 경쟁체계 안에서 학생들 간의 비교가 빈번해짐에 따라 청소년들은 학업문제 및 대인관계문제와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Eccles & Midgley, 1990; Fenzel, 2000). 그 결과 청소년들은 미성숙한 시기에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겪으며, 인터넷 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된다(정다운, 2010).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청소년기 애착이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Papini, Roggman & Anderson, 1991; 김재희, 주은선, 2001). 또한 중독에 취약함을 보이는 사람은 전 생애에 걸쳐 형성되는 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히며, 안정적인 애착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유성희, 2009). 조성일(2011)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이 음주·흡연 중독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불안정 애착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하며, 불안정 애착형성이 알코올, 니코틴과 같은 물질 중독보다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애착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애착(Attachment)은 한 인간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렬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이다(Bowlby, 1973). 이러한 애착은 영아기와 아동기를 넘어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전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터넷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 수준이 낮은 반면,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한규, 2006; 최명구, 2009; 정다운, 2010). 한편 목점선(2004)의 연구에서는 애착이 직접적으로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이 두 변인을 매개하는 변인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및 개입의 일환으로 애착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애착이 어떤 변인을 거쳐 인터넷 중독에 이르게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터넷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양면성에 대하여 Suler(1996)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현대 사회가 현실에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편리성, 익명성, 접근용이성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채우기 어려운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Griffiths(1999) 역시 인터넷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매개체로 보았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인터넷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현실에서 좌절된 욕구를 보상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Alex & Jefferey, 2001). 특히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인터넷·디지털 기기의 사용방법을 쉽게 습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 미성숙한 과도기적 발달단계에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자극적 흥미를 유발하는 인터넷을 적절하게 이용하는데 보다 취약하므로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크다(정여주, 2005).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 경쟁에 따른 심리적 압박, 바쁜 일상으로 인한 부모의 무관심한 환경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해소하는데 적절한 놀이문화가 부재한 상황이다(조민자, 2011).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할 확률이 증가하고, 나아가 성인보다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김민정, 2010). 즉,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을 인터넷 속의 가상세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성에 더욱 많이 노출되는 것이다(김민정, 2010). 이렇듯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나 좌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한다(이유경, 채규만, 2006). Young(1999)은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에 기저하고 있는 동기에 대해 설명하는 2가지 ACE 모델을 발달시켰다. 하나는 익명성(Anonymity), 편리성(Convenience). 현실탈출(Escape)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통제감(Control), 흥미감(Excitement)으로 구성되

어 있다. 결국 청소년들은 이러한 인터넷의 속성에 의해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다양한 욕구를 인터넷 사용을 통해 충족시켜 나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영미, 김동민, 송경수, 유지현(2009)의 연구에서 만족스러운 것을 추구하려는 ‘접근’과 불만족스러운 것을 ‘회피’하려는 두 개의 축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해 새롭게 설명하였다. 유능감, 사회적 인정, 유대감, 재미, 자기정체감 등은 접근의 대상이고, 삶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권태로움, 소외감 등은 회피의 대상이라고 보고하였다(조영미 등, 2009).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병리적 문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접근하려하는 일종의 생존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수단과 그 내부에 기저하고 있는 욕구로 분리하여 이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역시 인터넷이라는 수단과 그 내부에 기저하고 있는 욕구로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채 인터넷을 통해 충족하고 있는 욕구들에 대해서 탐색해 봄으로써 인터넷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보다는 욕구 충족을 중심으로 한 개입 및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Ryan과 Deci(2000)가 주장한 자기 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가 채워질 때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본적인 세 가지 심리 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가 채워질 때 스스로 내재적인 동기가 활성화되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결정성이 발휘된다고 보았다(곽소영, 손은정, 2008). 즉, 기본 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는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영양분처럼 인간이 심리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영양소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격

과 인지구조에서의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다(김아영, 2010).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설명하는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율성(Autonomy)은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며 조절할 때에 자기 결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려는 욕구이다(Ryan & Grolnick, 1986). 다시 말해 행동을 선택하는 자유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능력이 있다고 보며, 선택한 자신의 길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뜻한다(김은영, 2012). 유능성(Competence)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이다(Deci & Ryan, 1985). 이는 획득한 기술이나 능력 그 자체라기보다 개인이 행동을 통해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 충족된다(Ryan & Deci, 2002; 김아영, 2010). 마지막으로 관계성(Relatedness)은 소속의 욕구처럼 대인 관계적 유대를 강하고 안정적으로 형성하려는 경향이다(Baumeister & Leary, 1995). 즉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타인이 자신을 배려한다고 느끼는 경우, 그리고 타인과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속해있을 때 충족되는 욕구를 말한다(김아영, 2010).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을 통해 추구하는 만족감인 유능감, 사회적 인정, 유대감 등은 3가지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스스로 자기행동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은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중독에 이르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한편 Ryan & Deci(2000)는 자신이 타고난 능력과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으로부터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애착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황아람, 2010). Ryan과 Deci(2000) 역시 기본심리욕구는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통해 충족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민감성이 요구되는데, 민감한 양육자는 자녀에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육을 통해 적재적소의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발달을 유도한다. 이렇게 형성된 안정적인 애착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스스로 탐색하며 자율성을 발달시키고, 나아가 유능성과 관계성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어 3가지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Pietromonaco & Feldman Barrett, 2000). 최근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설명하는 기본심리욕구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김은영, 2012; 서준호, 이희경, 2012; 이지혜, 2012; 정민선, 김현미, 권현용, 2012; 김효정, 안현숙, 이동만, 2013; 김광일, 2013). 구체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지혜(2012)의 연구에서는 현실에서의 기본심리욕구가 덜 충족될수록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준호, 이희경(2012)의 연구에서는 게임 몰입과 게임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충족이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2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착, 기본심리욕구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검증해볼 것이다. 그리고 중학생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해봄으로써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개입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이 아닌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욕구 충족을 중심으로 한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II. 이론적 배경

1. 인터넷 중독

1) 중독의 정의

인터넷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독(Addiction)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의학에서 중독(Addiction)이라는 개념은 술이나 마약, 담배, 또는 약물 등의 물질사용에 따른 심리적·생리적 의존을 뜻하는 중독(Intoxication)을 의미했다(APA, 2000). 하지만 최근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과도한 특정 행동에 대한 집착이나 행동을 하고자 하는 충동조절의 문제, 또는 의존적인 행동 등을 행동 중독(Behavioral Addic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Griffiths(1999)에 의하면 물질에 의한 중독이 아닌 행동 중독의 핵심요소에는 특정 행동에 대한 의존(Dependence), 내성(Tolerance), 금단(Withdrawal), 기분의 변화(Mood Modification), 파생된 갈등현상(Conflict), 재발(Relapse)와 같은 6가지 특성들이 있다. 이러한 행동 중독은 현대사회의 기술 발달과 함께 다양한 유형으로 변형되어 TV, 인터넷, 전화 등의 기술 중독(Technological Addiction)으로 확장되었다(조일주, 2009).

기술 중독은 수동적 중독과 능동적 중독으로 나눈다(장혜진, 채규만, 2006). 수동적 중독은 TV·Video·영화를 보는 행위와 관련된 행동 중독을 말하며, 능동적 중독은 컴퓨터 게임·인터넷 등과 같은 상호작용이 필요한 측면에서의 행동 중독을 의미한다(장혜진, 채규만, 2006). 따라서 인터넷은 상호작용이 필요한 측면에서 행동 중독의 하위 차원에 속하는 기술 중독 중 능동적 중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인터넷 중독의 정의

행동 중독 중 하나인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oldberg(1996)는 최초로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IV)의 물질 중독(Substance Intoxication)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인터넷 중독의 진단기준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터넷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의존, 내성, 초조·불안, 금단의 4가지 증상을 겪는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유발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인터넷 중독 장애’라고 설명하였다(김동욱, 2001; 류진아, 2003; 류진아, 김광웅, 2004). Young(1996)은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IV)에서 충동조절장애(Impulse-Control Disorder)에 속하는 도박 중독(Pathological Gambling)의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병리적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인 사고, 내성과 금단, 의도한 것 이상의 과도한 인터넷 이용, 지속적인 욕구, 다른 활동에서의 흥미 감소, 과도한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무시 등이 ‘병리적 인터넷 이용’에 속한다고 제시하였다(Young, 1996). 이는 인터넷 중독을 하나의 생물학적 중독 장애로 보기보다는 과도한 컴퓨터 이용에서 비롯되는 행동 장애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Davis(2001) 역시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에 ‘병리적 인터넷 이용(Pathological Internet U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행동적 모형을 제시하며 부적응적인 인지를 핵심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한편 Alex와 Jeffrey(2001)는 인터넷 중독을 인지·행동·정서의 손상으로 인해 인터넷을

부적응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인터넷 행동 의존(Internet behavior dependence)’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인터넷 행동 의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현실에서 가지고 있었던 삶의 불만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Alex & Jeffrey, 2001). 또한 Orzack(1999)는 컴퓨터 중독 문제는 컴퓨터 자체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핵심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컴퓨터를 현실도피수단으로 이용할 경우에 부적응적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정의와 용어가 학자 및 연구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통합된 정의 및 용어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보편화된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학자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을 토대로 인터넷 중독을 ‘인간이 현실에서 만족되지 못한 개인적인 욕구나 소망을 충족하거나 보상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함에 따라 강박적인 이용과 집착, 내성, 금단, 통제 불능, 일상생활의 부적응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인터넷 중독 연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 중 다수의 연구들은 대부분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거나 인터넷 중독의 심리·사회적 원인 및 결과를 찾는 내용이었다(권재환, 2008). 하지만 무엇이 인터넷 중독의 본질적 원인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인터넷 중독에 이르게 되는지를 다루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Widyonto & Griffiths, 2006; 장재홍, 김광현,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변인들 간의 관련성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중학생이 인터넷 중독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입 및 예방 방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애착

1) 애착의 정의

애착(Attachment)은 특정한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Bowlby, 1958). 생애 초기 특정 인물에게 애착을 느낀 영아는 그 인물을 세상을 탐색하는 안전기지로 여기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Bowlby, 1969). 이러한 정서적 경험을 통해 자기개념이 형성되고 나아가 타인 및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발달시켜 나간다(Bowlby, 1969, 1982; Bretherton, 1990). 즉, 정서·인지·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Bowlby, 1969, 1982; Bretherton, 1990; Izard, Haynes, Chisholm & Baak, 1991). 이렇게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까지 전 생애동안 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서현, 2012).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 및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도식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안정 애착은 양육자가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형성된다. 나아가 양육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아는 자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 그리고 타인이 자신에게 반응적이고 접근 가능한 존재인지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게 된다(황아람, 2010). 다시 말해, 인간은 애착대상과의 반복되는 상호작용경험을 통해 자기·타인·관계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발달시키는데, 이를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한다(Bowlby, 1982). 개인은 이 모델에 기초하여 자신이 접하게 되는 새로운 자극과 정보를 지각하고 해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게 된다(Wei, Shaffer, Young, Zakalik, 2005). 이미 형성된 애착은 새로운 상황에 부딪치면 기존의 내적 작동 모델의 중재를 통해 이미 갖고 있

던 모델을 유지하거나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현실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김서현, 2012). 따라서 애착은 지속성과 변화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애착대상도 특정한 한 사람으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나 친구, 또는 애인과 배우자로 점차 바뀌어간다. 그러므로 애착은 전 생애 전반에 걸쳐 형성·지속·유지된다는 생애 발달적 관점(Main, Kaplan, & Cassidy, 1985)에서 특정한 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유대감이라기보다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느끼는 유대감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2) 청소년기 애착의 특징

청소년 시기는 부모로부터 의존적인 상태에서 분리되어 친구들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약화되고 또래와의 애착관계를 추구하는 발달상의 변화를 보인다(Ainsworth, 1989).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친구, 교사 등 관계 대상이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애착은 이제 단순히 부모 애착이라고 간주하기 보다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의 애착은 아동기처럼 눈에 보이는 애착 행동 그 자체보다는 애착 정서와 관련이 있다(이은경, 1992).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 할 경우, 안정적으로 형성된 애착 정서는 필요할 때 언제나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내적 작동 모델을 활성화 시킨다(채진선, 2007). 이러한 청소년기 애착은 다른 발달적 특성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채진선, 2007). 청소년들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경우, 인간관계에서 성숙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며, 자존감, 자기효능감,

정서적 적응, 신체적 건강 등 광범위한 영역이 잘 발달하게 된다(Papini & Roggman, 1992; 권지은, 2003).

한편 청소년기 애착 연구는 영아 및 아동기 애착 연구가 표준화된 평가절차의 사용을 통해 발전되어 온 것과 달리 오랜 시간 표준화된 평가절차가 없었다(최옥현, 김봉환, 2007).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성인기 애착 측정도구의 개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박지선, 2008). 이후 청소년기의 애착과 성인기의 애착을 유사한 개념으로 보게 됨으로써 청소년기 애착 연구는 성인기 애착 연구와 맥을 같이 하게 되었다(박지선, 2008).

3) 애착의 유형

Ainsworth, Blehar, Warers, Wall(1978)은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이라는 유아의 양육자와의 분리경험에 대한 실험을 통해 주양육자가 방을 떠나고 돌아올 때 아이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애착의 안정성을 측정하며 애착을 독특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안정 애착(Secure Attachment)유형은 양육자와 분리될 때 고통스러워하고 저항하지만 재결합될 때에는 부모를 반기며 안정을 되찾아 놀이에 몰두하거나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둘째, 불안정-회피 애착(Insecure-Avoidant Attachment)유형은 양육자와 분리될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되돌아와도 다가갈려 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해 보이지만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양육자를 무시한다. 마지막으로 불안정-저항 애착(Insecure-Resistant Attachment)유형은 양육자와 분리될 때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표현하며 재결합되었을 때에도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양육자에게 접촉을 요구하는 동시에 저항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Ainsworth 등(1978)에 의해 제안된 애착유형을 성인기 애착에 대한 연구로 발전시킨 Hazan과 Shaver(1987)는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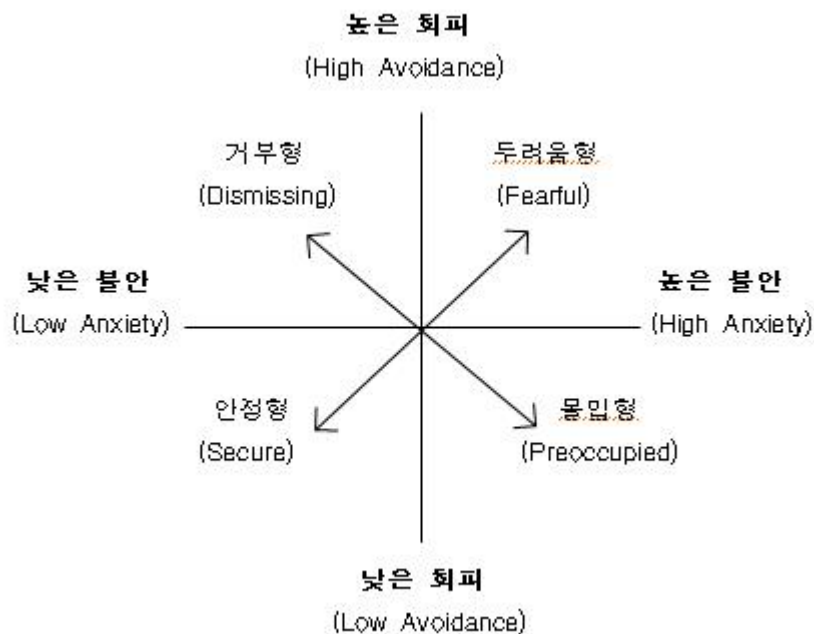
애착(Secure Attachment), 회피 애착(Avoidant Attachment), 불안/양가 애착(Anxious/Ambivalent Attachment)으로 분류한 세 가지 애착 유형을 제안했다. 먼저 안정 애착을 지닌 성인들은 타인과 비교적 쉽게 사귄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타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한상희, 2005). 둘째, 회피 애착을 지닌 성인들은 타인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과 가까워지면 불편함을 느끼는 동시에 타인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할까봐 불안해한다(한상희, 2005). 셋째, 불안/양가 애착을 지닌 성인들은 타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기 원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신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자기를 보살펴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한상희, 2005).

한편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Bowlby의 내적 작동모델을 자기(Self)와 타인(Others)으로 구성된 2개의 차원을 토대로 4개의 범주를 제안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작동모델을 구성한 개인은 ‘안정 애착’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자기-확신(Self-Confidence)을 갖고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친구나 배우자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Waters & Cummings, 2000). 반면 타인에 대한 부정적 모델과 자기에 대한 긍정적 모델을 구성한 개인은 ‘회피 애착’을 형성함으로써 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

		자기모델	
		긍정적	부정적
타인모델	긍정적	안정형(Secure) 안정애착	몰입형(Preoccupied) 저항애착
	부정적	거부형(Dismissing) 회피애착	두려움형(Fearful) 해체-혼란애착

<그림 1>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2차원 4범주 애착 유형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Waters & Cummings, 2000). 한편 자기에 대한 부정적 모델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모델을 구성한 개인은 ‘저항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로써 안전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Waters & Cummings, 2000). 마지막으로 자기와 타인 모두 부정적인 모델을 구성한 개인은 ‘해체-혼란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해체-혼란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친밀한 관계에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에게 거절당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nnan, Clark와 Shaver(1998)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2차원 4범주 모형 체계를 받아들이지만 애착 유형 분류의 기준이 되는 2차원을 약간 수정하여 <그림 2>에 제시된 모형을 제안하였다. 수정된 2차원은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이라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두 개의 축이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불안 애착은 관계에 대해



<그림 2> Brennan, Clark와 Shaver(1998)의 애착 2차원 모형

지나치게 몰두하고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 정도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자기모델과 유사한 차원이다. 회피 애착은 친밀감과 의존성으로 인한 독립성 침해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 정도로 타인모델과 유사한 차원이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불안과 회피의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4가지 애착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 차원 모두 높을 경우 불안정한 애착 패턴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어떤 애착 수준이 높은지에 따라 각기 다른 애착 유형을 가지게 된다고 가정한다(Brennan et al., 1998). 이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2차원 4범주 모형 체계에서 살펴본 유형과 거의 유사하다(김현주, 2009). 실제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2차원 4범주 모형이 성인기 애착, 나아가 청소년기 애착 양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Griffin & Bartholomew, 1994; 장휘숙, 1999). Brennan, Clark와 Shaver(1998)는 이 결과를 토대로 친밀한 관계 경험 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ECR)를 개발하였고, 현재 성인기 및 청소년기 애착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rennan, Clark와 Shaver(1998)이 제안한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이라는 두 차원을 통해 청소년기의 애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불안 애착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회피 애착은 타인과의 가까운 관계를 회피하는 정도를 반영한다(김진문, 2012). 따라서 불안 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상의 사소한 위협에 대해 과장해서 표현하고 애착 대상의 주의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는 반면 회피 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애착 욕구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최대한 타인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김병직, 오경자, 2009). 이에 반해 불안·회피 애착, 두 차원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는 불안정 애착이 낮은 것으로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설명하는 기본심리욕구

1) 자기 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동기를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와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으로 구분한다(김아영, 오순애, 2001). 외재적 동기는 행동을 일으키는 촉발요인이 외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보상 또는 처벌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인해 행동이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황아람, 2010). 내재적 동기는 행동을 일으키는 촉발요인이 내부에 있다는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제가 주는 즐거움이나 흥미와 같은 개인 내부에서 기인하는 요인으로 인해 행동이 유발되는 것을 들 수 있다(Deci & Ryan, 1991; 이명희, 2008). 이러한 두 가지 동기에 대해서 상호 독립적이라는 견해와 상호 대립적이라는 견해가 수년간 논쟁거리로 다루어졌다(김아영, 2002; 김아영, 오순애, 2001).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Deci와 Ryan(1985)은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하나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속성으로 간주하는 대안적 이론으로 ‘자기 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을 주장하였다. 자기 결정성 이론은 개인의 성격 발달과 행동적 자기조절(Self-Regulation)을 위해서는 내재적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이론이다(Deci & Ryan, 198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들이 내재적인 동기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자기 결정적이고, 외재적인 동기가 활성화되면 덜 자기 결정적이게 된다는 것이다(황아람, 2010). 여기서 말하는 자기 결정은 보상이나 외부 압력 등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소은희, 신희천, 2011). 즉, 자기 결정성 이론은 개인의 성격을 발달시키고 개인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간의 진화된 내적 자원들을 강조하는 접근이다(Ryan, Kuhl & Deci, 1997).

이러한 자기 결정성을 이루고 인간이 성장지향적인 잠재력을 최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2; 한소영, 신희천, 2010). 이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개인의 내재적 동기를 자극하고, 나아가 그 동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장은숙, 2012). 따라서 인간의 필수적인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발달에 긍정적인 환경이나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2). 그 결과로 내재적 동기가 증진되고 건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조영미, 이희경, 2013).

2)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정의

① 자율성(Autonomy)

자율성은 자신이 행동의 주체라고 여기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정도를 말한다(Ryan & Deci, 2000). 자기 자신이 진정한 관심과 가치관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통합된 자기감(Sense of Self)이라고 할 수 있다(장은숙, 2012). 이러한 자율성은 자기(Self)와 연결되는데, 이는 통합 및 동화 과정(Synthetic and Assimilative)을 통해 이루어진다(장은숙, 2012). 이 자기(Self)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자기 개념(Self-Concepts)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내적 요소와 사회적인 정보를 통합 및 동화 과정을 사용하여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개념이라고 여겨진다(장은숙, 2012). 따라서 자율성이 먼저 만족되어야 자기(Self)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

② 유능성(Competence)

유능성은 사회적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서 효율적인 것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Ryan & Deci, 2002). 이는 습득된 기술이나 능력 그 자체라기보다는 행동에서의 자신감과 효능감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2). 유능성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인 기존의 자기 효능감과 달리 핵심적 자기에 대한 느낌(Core Sense of Self)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yan & Deci, 2000; Ryan et al., 2006). 하지만 유능성은 특정한 영역에서 획득하여 원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비슷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Deci & Ryan, 2000). 이처럼 유능성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찾게 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기술과 능력 등을 유지하고 확장하도록 촉진한다(황아람, 2010).

③ 관계성(Relatedness)

관계성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관심을 주고받는다느 느낌이며, 다른 개인들과 사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Ryan, 1995). 즉, 타인과 접촉하고 함께 어울리며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성을 반영한다(장은숙, 2012). 그러므로 이 욕구는 안전한 친교 관계나 화합 안에서 타인과 함께 한다는 심리적인 느낌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Ryan & Deci, 2000). 한편 관계성은 새로 형성되는 특질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정교화되고 개선되는 특성이다.

4. 인터넷 중독, 애착, 기본심리욕구 간의 관계

1) 애착과 인터넷 중독

Flores(2004)는 중독을 애착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일종의 애착장애로 보았다. 즉 중요한 타인과 만족스러운 애착을 형성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초래되는 친밀감의 결여를 알코올이나 도박, 인터넷 등으로 대체하여 나타나는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하였다(윤소정, 2013). 실제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를 통해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과 이영식은 청소년 금연·금주교실을 다니는 청소년 중독자 255명을 포함해 서울 시내 중·고교생 2,188명(이중 31%는 고위험 인터넷 중독군에 해당함)의 애착과 중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애착이 불안정한 청소년일수록 알코올이나 흡연,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11). 인터넷 중독 정도(상위 25%는 인터넷 중독 집단, 하위 25%는 정상 사용자 집단으로 분류함)에 따라 부·모·또래 애착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이지은(2004)의 연구결과, 인터넷 중독 집단의 부·모·또래 애착은 정상 사용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2004)은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청소년은 자존감이 낮으며 자기개념에 대한 혼란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은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다운(2010)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안정 애착이 형성된 경우에 불안·회피 애착이 형성된 경우보다 인터넷 중독 수준이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현덕과 홍혜영(2011)의 연구에서도 불안정한 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안 애착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회피 애착은 인

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덕, 홍혜영, 2011). 따라서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동일한 맥락으로 노지정(2008), 목점선(2004), 김서현(2012), 윤소정(2013)의 연구에서 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간접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었음을 밝혀내었다. 이에 따라 애착이 직접적으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매개변인을 거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변인으로 기본심리욕구를 설정하여 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2)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와 인터넷 중독

① 자율성(Autonomy)과 인터넷 중독

자율성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자유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욕구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김은영, 2012). 이러한 자율성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인 부모의 감독 및 통제에 관한 내용과 유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의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고 감독한다고 지각할수록 인터넷 중독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기숙, 김경희, 2009; 양명숙, 조은주, 2011).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의 인터넷 이용을 많이 통제한다고 지각할수록 인터넷에 더 중독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다(전춘애, 박철옥, 이은경, 2008). 한편 김지형(2002)과 설인실(2004)은 부모의 감독과 통제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아닌 부모의 감독 및 통제의 방법이 인터넷 중독과 연관된다고 밝혔다. 구체

적으로 김지형(2002)은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수용적일수록 인터넷에 중독될 경향이 낮은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소홀하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비난과 체벌을 자주 할수록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인터넷 이용에 대해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통제나 감독을 할수록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설인실, 2004).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자율성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이용에 대해 비난과 체벌과 같이 부정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수용적인 태도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며 청소년기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인정해주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기숙, 김경희, 2009).

② 유능성(Competence)과 인터넷 중독

자기 결정성 이론을 제안한 Deci과 Ryan(2000)가 유능성을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비슷하게 보면서 유능성을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정의(Bandura, 1996)로 자기 결정성 이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은영, 2012). 이처럼 유능성과 유사한 개념인 자기효능감은 다수의 연구(송원영, 1998; 류진아, 김광웅, 2004)를 통해 인터넷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이다. 현실세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현실 즉, 오프라인세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인터넷을 통해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줄어든다(Suler, 1996). 하지만 현실세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에는 가상세계, 즉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세계에서 결핍된 욕구를 찾고자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Kraut & Patterson, 1998). 실제로 류진아와 김광웅(2004)의 연구에서 현실세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③ 관계성(Relatedness)과 인터넷 중독

관계성은 소속의 욕구와 같이 대인 관계적인 유대를 형성하려는 경향성을 말한다(Baumeister & Leary, 1995). 인터넷 사용자들은 주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보았다(Suler, 1996; Young, 1996).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회적 관계망이 좁거나 고독하고 외로운 경우와 같이 현실세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해 관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가상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인터넷 중독자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로움이나 고독, 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원영, 1998; 조민자, 2011). 또한 Young(1999), 류진아(2003), 류진아와 김광웅(2004) 등은 부모 및 가족의 지지가 약하거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중독이 높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한편 청소년 시기는 가정 즉, 부모·가족뿐만 아니라 또래친구, 그리고 교사에 이르기까지 관계가 다양해지므로,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위치한 10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청소년 942명을 대상으로 학교환경 미시체계 변인에 대해 살펴본 연구결과, 또래와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류진아, 김광웅, 2004).

④ 기본심리욕구와 인터넷 중독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민선, 김현미, 권현용(2012)의 연구와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광일(2013)의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될수록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지혜(2012)는 대학생 258명을 대상으로 현실에서의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인터넷 과다 사용과의 관계에서 인터넷에서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검증결과, 현실에서의 기본심리욕구 충족 정도가 낮을수록, 인터넷에서의 기본심리욕구 충족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준호와 이희경(2012)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중·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게임몰입과 게임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조절변인으로써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하위변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두에서 조절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현실에서 느끼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수록 게임 몰입에 따른 중독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이지혜, 2012; 서준호, 이희경, 2012).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별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 중 김효정, 안현숙, 이동만(2013)은 대학생 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자기결정성 요인인 기본심리욕구가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유형(게임형, 정보검색형)에 따른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자율성과 관계성 요인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인터넷 사용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게임형 집단에서는 유능성과 관계성 모두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정보검색형 집단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은영(2012)의 연구에서 722명의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결정성 이론의 세 가지 기본심리

욕구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 자율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설명량은 유의미하였지만, 유능성과 관계성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광일(2013)의 연구결과, 생활만족도와 게임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완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기본심리욕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대다수이며, 생활만족도는 준거변수에 해당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생활만족도와 기본심리욕구의 인과관계가 이론적으로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자는 기본심리욕구의 예측변수로 애착을 설정하여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3) 애착과 기본심리욕구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인간의 필수적인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생득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저절로 발생되며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2). 즉, 기본심리욕구가 생득적이기는 하나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이혜수, 이희경, 2011). 이는 욕구의 개인차가 욕구의 정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주어져야 하는 사회·환경적 맥락의 차이로 초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Ryan, Deci, Grolnick와 La Guardia(2006)은 발달에 있어서 자율성 및 자율성 지지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위해 애착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들은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자란 자녀에게 민감하며 자녀에게 접근성, 노력, 관심과 같은 구체적인 양육 형태로 자원을 제공하며, 자녀의 능력과 상태에 맞추어 조절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자율성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Ryan 등, 2006). 이와 유사한 맥락인 애착 이론에 따르면 민감한 양육자는 자녀의 욕구, 신호, 행동에 시기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자녀에게 적재적소의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도록 한다. 두 이론의 관점을 종합하면 민감한 양육자는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함으로써 자녀가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녀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이 발달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Pietromonaco & Feldman Barrett, 2000). 실제로 Wei, Shaffer, Young과 Zakalik(2005)은 불안정 애착이 기본심리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남·여 중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한 황아람(2010)의 연구에서 불안·회피 애착이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안정 애착이 기본심리욕구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밝혀냈다. 또한 서울·경기 지역 청소년 상담센터와 대학상담실에서 상담 수련 중인 경력 3년 이하의 초심상담자 189명을 대상으로 한 이혜수와 이희경(2011)의 연구, 만 3-6세 유아를 둔 어머니 253명을 대상으로 한 장은숙(2012)의 연구, 대학생 361명을 대상으로 한 조영미와 이희경(2013)의 연구,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수진(2013)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성인 애착의 두 차원인 불안·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화진과 서영석(2011)의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회피 애착은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불안 애착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거쳐 간접적으로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정한 애착인 불안·회피 애착이 기본심리욕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재확인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Ⅲ. 연구 문제

1. 연구 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불안 애착 및 회피 애착, 기본심리
욕구 간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가설 1-1.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 수준이
낮을 것이다.

가설 1-3. 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될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낮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상위 10%와 하위 10%)에 따라
불안 애착 및 회피 애착, 기본심리욕구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

가설 2-1. 인터넷 중독 고위험 집단(인터넷 중독 수준 상위 10%)이 저위험
집단(인터넷 중독 수준 하위 10%)보다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2-2. 인터넷 중독 고위험 집단(인터넷 중독 수준 상위 10%)이 저위험
집단(인터넷 중독 수준 하위 10%)보다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2-3. 인터넷 중독 고위험 집단(인터넷 중독 수준 상위 10%)이 저위험
집단(인터넷 중독 수준 하위 10%)보다 기본심리욕구 수준이 낮을 것
이다.

[연구문제 3] 중학생의 불안 애착 및 회피 애착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하여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3-1.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은 기본심리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하여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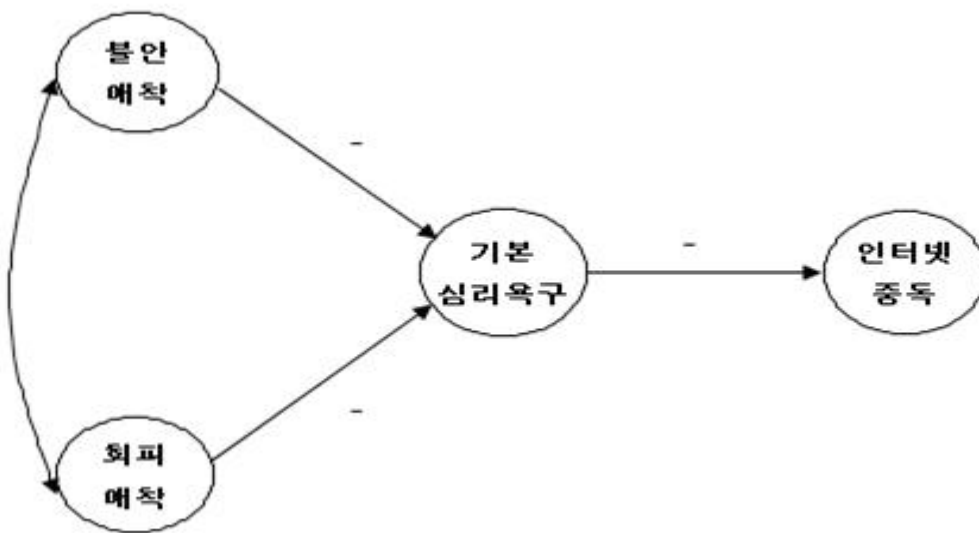
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을 예측변수로, 인터넷 중독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지닐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연구모형]은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모형으로 <그림 3>에 제시된 것과 같다.

[연구모형]



<그림 3> 중학생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모형

IV.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각 학급별로 담임교사가 조회시간에 질문지를 직접 배부한 후, 본 연구자가 직접 교내방송을 통해 설문조사에 대한 안내(연구 내용 및 질문지·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 요령)를 하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작성에는 약 15-20분이 소요되었고, 질문지는 설문조사 당일에 회수하였다. 하지만 연구 참여 동의서는 중학생이 법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 본인의 서명뿐만 아니라 학생의 법적 보호자의 서명도 필요하여 약 2주 후에 회수하였다. 설문조사 당일에 총 409부(남 243명, 여 166명)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당일 결시로 인해 총 402부(남 238명, 여 164명)가 회수되었다. 그리고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연구 참여 동의서가 회수되지 않은 42부의 질문지와 2개의 척도 이상 응답하지 않거나 단일번호로 응답한 10부의 질문지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총 350명이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3.25($SD=0.47$)세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50)

		빈 도(명)	퍼센트(%)
학 년	중 2	350	100
	성 별		
	남자	202	57.7
	여자	148	42.3
나이(만)	12	2	0.6
	13	261	74.6
	14	83	23.7
	15	4	1.1

2. 측정 도구

1) 간략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 (K척도 Short form: KS척도)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동일, 정여주, 이은아, 김동민, 조영미(2008)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개발한 ‘간략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K척도 Short form: KS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K척도)는 40문항으로 청소년들이 풀기에 너무 문항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문항 진술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하여 간략형 척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과 함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20문항의 간략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KS척도)가 제작되었다. K척도와 비교하여 신뢰도에 큰 문제가 없고, 대상군 분류(일반사용자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결과에서도 80%가량 일치하여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되고 간단하게 실시하기에 적합한 KS척도를 사용하였다.

KS척도는 일상생활장애 6문항(예,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긍정적 기대 1문항(예, 인터넷을 하는 동안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금단 4문항(예,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진다),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3문항(예, 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일탈행동 2문항(예,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내성 3문항(예,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등 6개의 하위 요인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요인들을 합한 총점을 이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1점에서 4점까지(1=전혀 그렇지 않다, 2=때때로 그렇다, 3=자주 그렇다, 4=항상 그렇다)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위험도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KS척도 총점의 T점수가 70점을 넘으면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의 T점수가 63점을 넘으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한다.

김동일 등(2008)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초등학생의 경우 .88, 중학생의 경우 .91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표 2> 인터넷 중독 척도의 요인별 문항 구성 및 내적 일치도

요 인	문항 번호	문항수	내적 일치도
일상생활장애	1, 2, 3, 4, 5, 6	6	
긍정적 기대	7	1	
금단	8, 9, 10, 11	4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12, 13, 14	3	
일탈행동	15, 16	2	
내성	17, 18, 19, 20	4	
인터넷 중독		20	.88

2) 애착 척도 (ECRS-R)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박지선(2008)이 청소년용으로 수정·보완한 ‘친밀한 관계경험 척도(ECRS-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성인 애착 유형 검사로 개발한 친밀한 관계경험 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ECR)를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하여 개정한 ECR-R(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Revised)를 김성현(2004)이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ECRR-K)을 다시 박지선(2008)이 청소년용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척도는 애착의 기본적인 두 차원인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 등 2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은 1점에서 7점까지(1=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조금 그렇지 않다, 4=보통이다, 5=조금 그렇다, 6= 대체로 그렇다, 7=항상 그렇다)의 Likert식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두 차원의 조합으로 4가지 애착유형-안정형, 몰입형, 거부형, 두려움형으로 분류한다. 안정형은 불안 애착 점수와 회피 애착 점수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집단이고, 몰입형은 불안 애착 점수는 평균보다 높지만 회피 애착 점수는 평균보다 낮은 집단이다. 또 거부형은 불안 애착 점수는 평균보다 낮지만 회피 애착 점수는 평균보다 높은 집단을 말하며, 두려움형은 불안 애착 점수와 회피 애착 점수 모두 평균보다 높은 집단을 말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불안 애착이 .89, 회피 애착이 .85였다. 그리고 박지선(2008)의 연구에서는 불안 애착이 .85, 회피 애착이 .79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불안 애착이 .94, 회피 애착이 .86으로 나타났다.

<표 3> 애착 척도의 요인별 문항 구성 및 내적 일치도

요 인	문항 번호	문항수	내적 일치도
불안 애착	2, 6, 8*, 10, 12, 13, 14, 15, 17, 20, 21, 22, 23*, 24, 25, 26, 31, 36	18	.94
회피 애착	1, 3*, 4, 5*, 7*, 9*, 11, 16, 18*, 19, 27*, 28*, 29*, 30*, 32*, 33*, 34*, 35	18	.86
불안정 애착		36	.92

주. *는 역채점 문항임

3) 한국 청소년 기본심리욕구 척도 (Korea Vers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for Adolescents)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한국 청소년 기본심리욕구 척도’이다.

이 척도는 자기결정성이론의 핵심개념인 인간의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Ryan과 Deci(2002)가 개발한 ‘기본심리욕구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BPNS)’의 문항에 대한 번역과 역번역을 거치고,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느끼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관련하여 제작된 추가 문항에 대한 예비검사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개발 및 타당화되었다.

자율성 욕구(예,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유능성 욕구(예,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관계성 욕구(예,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등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하위 요인별로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은 1점에서 6점까지(1=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조금 그렇지 않다, 4=조금 그렇다, 5=대체로 그렇다, 6= 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3개의 하위 요인(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각각의 점수를 합한 총점을 말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 만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자율성이 .70, 유능성이 .75, 관계성이 .7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이 .80, 유능성이 .88, 관계성이 .89, 그리고 기본심리욕구는 .92로 나타났다.

<표 4>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요인별 문항 구성 및 내적 일치도

요 인	문항 번호	문항수	내적 일치도
자율성	1*, 2*, 3*, 4, 5, 6*	6	.80
유능성	7, 8, 9, 10, 11, 12	6	.88
관계성	13, 14*, 15, 16, 17, 18	6	.89
기본심리욕구		18	.92

주. *는 역채점 문항임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PASW statistics 18.0 와 M-plus 5.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 대상자 및 주요 변수들 간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의 빈도분석 등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정규성 가정은 정상분포조건(왜도 <3 , 첨도 <10)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Kline, 2011). 그 후, SPSS 18.0의 상관분석을 통해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 인터넷 중독, 기본심리욕구 간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측정된 인터넷 중독 수준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인터넷 중독 고위험 집단(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및 고위험 사용자군에 해당함)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인터넷 중독 저위험 집단(일반 사용자군에 해당함)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SPSS 18.0의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들이 두 집단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M-plus 5.0을 이용하여 구조 방정식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구조 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각 변수들 간의 경로가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홍세희, 2000). 먼저 여러 개의 측정변수(Measured Variable)를 이용해서 추출된 공통변량을 잠재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측정오류가 통제되어 잠재 변수들 간의 공변량 계수나 회귀 계수 값이 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예측변수 및 준거변수

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 매개변수(Mediator Variable)의 사용이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가설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모형이 실제로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척도의 많은 문항 수들을 하위요인별 또는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 꾸러미(Item Parcelling)를 구성하여 각 잠재변수 당 3-6개의 측정변수를 만든 후, 측정변수들과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χ^2 (Chi-Square)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통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χ^2 검증은 구조 방정식 모형이 개발된 초기에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영가설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작용하여 모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홍세희, 2000). 따라서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거나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에는 TLI, CFI, RMSEA 값이 있다. TLI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형의 오류가 적고 모형이 간명할수록 그 값이 증가하는 적합도 지수이다(Kline, 2011). 그리고 CFI 지수는 모형의 간명성은 고려하지 않지만,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 오류를 측정하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이며(Kline, 2011), RMSEA는 모형의 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측정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이다(Kline, 2011). χ^2 값은 자유도, p 값과 함께 고려해야 하며, 보통 χ^2/df 값이 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라고 여긴다(홍세희, 2000). TLI와 CFI 값은 0에서 1사이이며 .90이상이면 그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그리고 RMSEA 값의 하한선은 0이지만 상한선은 제한되지 않으며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

다(홍세희, 2000). 일반적으로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꽤 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라고 간주한다(Kline, 2011). 마지막으로 최종모형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이 제안한 Bootstrapping 절차를 실시하였다. Z검증(Sobel 검증)은 매개효과(간접효과)가 실제로 정적 편포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분포를 따를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오차가 과대평가되어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서영석, 2010). 반면에 Bootstrapping 절차는 매개효과(간접효과)가 정상분포를 이뤄야 한다는 가정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서영석, 2010). 매개효과(간접효과)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매개효과(간접효과)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서영석, 2010).

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1) 인터넷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

먼저 인터넷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전에, 연구 대상자들을 척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T점수에 따라 인터넷 중독 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T점수 63점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 사용자군은 89.7%, T점수 63점 이상-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6.3%, T점수 7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험 사용자군은 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들의 인터넷 최초 이용 시기,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 유형과 같은 인터넷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표5).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최초 이용 시기는 만 3세 이전 0.3%, 만 4-6세 17.5%, 만 7-9세 54%, 만 10-12세 25.7%, 만 13-15세 2%, 무응답 0.6%로 보고되어, 연구 대상자의 72.1%가 만 10세 이전에 인터넷을 최초로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위험 사용자군(고위험 사용자군: 14명,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20명)을 대상으로 보면 위험 사용자군의 75%가 만 10세 이전에 인터넷을 최초로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30분미만 28%, 30분이상-1시간미만 27.1%, 1시간이상-2시간미만 30.3%, 2시간이상-3시간미만 10.9%, 5시간이상 2.6%, 무응답 1.1%로 보고되어, 연구 대상자의 86.4%가 하루 평균 2시간미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용자군 89.1%(30분미만 30.6%, 30분이상-1시간미만 29.6%, 1시간이상-2시간미만 28%)의 대다수가

2시간미만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에 위험 사용자군 86.1%(1시간이상-2시간미만 50%, 2시간이상-3시간미만 19.4%, 5시간이상 16.7%)는 하루 평균 1시간에서 5시간이상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인터넷 이용에 관한 일반적 특성 (N=350)

인터넷 이용 관련 내용		성 별(명)		전체 (명)	위험사용자군	
		남자 (n=202)	여자 (n=148)		남자 (n=20)	여자 (n=16)
인터넷 이용 시기	만 3세 이전	0	1	1	0	1
	만 4 - 6세	35	26	61	5	3
	최초 만 7 - 9세	106	83	189	8	10
	만 10-12세	56	34	90	7	2
	만 13-15세	5	2	7	0	0
	무응답	0	2	2	0	0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30분 미만	51	47	98	1	1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52	43	95	1	1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69	37	106	12	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22	16	38	3	4
	5시간 이상	5	4	9	2	4
	무응답	3	1	4	1	0
인터넷 이용 유형	전자우편(E-mail)	0	1	1	0	0
	채팅 및 메신저	27	33	60	1	7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6	6	12	1	2
	개인 홈페이지 활동(미니홈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6	19	25	1	3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12	27	39	0	1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영화파일 등) 이용	24	31	55	1	2
	인터넷 상거래 및 쇼핑	2	11	13	0	0
	게임 및 오락	113	11	124	14	0
	성인 사이트 이용	0	0	0	0	0
	복수응답	9	7	16	2	0
	무응답	3	2	5	0	1
인터넷 중독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T점수 63점 미만)	182	132	314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T점수 63-69점)	16	6	22		
	고위험 사용자군 (T점수 70점 이상)	4	10	14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용 유형은 전자우편 0.3%, 채팅 및 메신저 17.1%, 동호회 등의 활동 3.4%, 개인 홈페이지 활동 7.1%, 학습관련정보이용 11.1%, 학습이외의 정보이용 15.7%, 인터넷 상거래 3.7%, 게임 및 오락 35.4%, 복수응답 4.6%, 무응답 1.4%로 보고되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의 39.2%는 인터넷을 통해 관계를 추구하는 메신저·동호회·개인 홈페이지를 주로 이용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의 55.9%는 게임 및 오락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위험 사용자군을 대상으로 보면 메신저·동호회·개인 홈페이지 이용과 같은 관계추구유형이 42.9%, 게임 및 오락이 38.9%로 나타나, 위험 사용자군의 대다수가 대인관계나 오락을 위해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요변수들의 상관분석 및 정규성 가정 검증

인터넷 중독과 불안·회피 애착, 기본심리욕구 간의 상관관계는 <표6>에 제시된 것과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구문제1]에 대한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인터넷 중독은 불안·회피 애착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중독과 정적 상관이 가장 높은 변수는 불안 애착($r=.32, p<.001$)이고, 그 다음은 회피 애착($r=.10, p<.10$)이었다. 반면 인터넷 중독과 기본심리욕구는 $r=-.24(p<.001)$ 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불안·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 수준은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피 애착($r=-.47, p<.001$), 불안 애착($r=-.44, p<.001$), 인터넷 중독($r=-.24, p<.001$)순으로 세 개의 변수 모두 기본심리욕구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불안·회피 애착과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수들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 수치를 살펴본 결과 (표6), 왜도는 3보다 작고 첨도는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변수들이 구조 방정식 모형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정상분포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주요변수들의 상관계수, 왜도, 첨도, 평균, 표준편차 (N=350)

	1	2	3	4	왜도	첨도
1. 인터넷 중독	1				1.35	2.04
2. 불안 애착	.32***	1			.55	-.24
3. 회피 애착	.10 ⁺	.36***	1		.21	.38
4. 기본심리욕구	-.24***	-.44***	-.47***	1	.01	-.72
평균	1.41	2.75	3.17	4.44		
표준편차	0.37	1.14	0.87	0.77		

cf.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인터넷 중독 저위험 · 고위험 집단 간 관련 변수들의 차이

전체 연구 대상자 350명 중 인터넷 중독 T점수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인터넷 중독 저위험 집단은 30명이었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위험 집단은 36명이었다. 인터넷 중독 저위험 집단에 해당하는 총 30명 중 남자 청소년은 9명, 여자 청소년은 21명으로 나타나 여자 청소년이 더 많았다. 반면 고위험 집단에 해당하는 총 36명 중 남자 청소년은 20명, 여자 청소년은 16명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이 더 많았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고위험 집단에 해당하는 총 36명 중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22명(남자청소년 16명, 여자청소년 6명)이고, 고위험 사용자군은 14명(남자청소년 4명, 여자청소년 10명)으로 나타났다.

불안·회피 애착 및 기본심리욕구가 인터넷 중독 수준으로 분류한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회피 애착을 제외한 불안 애착과 기본심리욕구가 인터넷 중독 저위험 집단과 고위험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안 애착은 인터넷 중독 저위험 집단과 고위험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60)=-4.44, p<.001$]. 인터넷 중독 저위험 집단은 평균적으로 2.49점 ($SD=1.15$)의 불안 애착을 보고했고, 인터넷 중독 고위험 집단은 평균적으로 3.11점 ($SD=1.03$)의 불안 애착을 보고했다. 또한 기본심리욕구도 인터넷 중독 저위험 집단과 고위험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53)=2.67, p<.01$]. 인터넷 중독 저위험 집단은 평균적으로 4.67점 ($SD=0.87$)의 기본심리욕구를 보고했고, 인터넷 중독 고위험 집단은 평균적으로 4.16점 ($SD=0.67$)의 기본심리욕구를 보고했다. 반면 회피 애착에서는 인터넷 중독 저위험 집단과 고위험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59)=-0.72, p=.48$]. 다시 말해, 인터넷 중독 고위험 집단이 저위험 집단에 비해 불안 애착이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기본심리욕구는 유의미하게 낮았다(표7). 이에 따라 가설 2-2를 제외한 [연구문제2]에 대한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표 7> 인터넷 중독 저위험·고위험 집단 간 관련 변수들의 차이 (N=66)

인터넷 중독	저위험 집단(하위 10%) (n= 30)		고위험 집단(상위 10%) (n= 36)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불안 애착	2.49	1.15	3.74	1.11	-4.44***
회피 애착	3.11	1.03	3.28	0.95	-0.72
기본심리욕구	4.67	0.87	4.16	0.67	2.67**

cf. $p^+<.10, *p<.05, **p<.01, ***p<.001$

3. 측정모형 분석

1) 측정변수들의 상관분석 및 정규성 가정 검증

인터넷 중독과 기본심리욕구는 각 6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위요인별로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제작하였다. 반면 불안·회피 애착은 단일차원으로 여러 문항들이 한 개의 잠재변수를 구인하고 있어, SPSS 18.0의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잠재변수별로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잠재변수에 대한 요인부하량의 평균이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문항을 할당하여 각각 4개의 문항꾸러미를 만들었다(서영석, 2010). 불안애착1에는 5개의 문항(31, 10, 13, 6, 23번), 불안애착2에는 5개의 문항(26, 22, 25, 17, 8번), 불안애착3에는 4개의 문항(15, 21, 36, 2번), 불안애착4에는 4개의 문항(14, 24, 12, 20번)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회피애착1에는 5개의 문항(32, 3, 11, 18, 29번), 회피애착2에는 5개의 문항(28, 19, 16, 35, 5번), 회피애착3에는 4개의 문항(30, 27, 4, 7번), 회피애착4에는 4개의 문항(34, 9, 1, 33번)이 포함되었다. 각 측정변수마다 포함되어 있는 문항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변수들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 및 첨도는 <표8>에 제시되어 있다. 각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불안·회피 애착,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인터넷 중독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안 애착1, 2, 3, 4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 변수는 자율성($r=-.39, -.44, -.51, -.40, p<.001$)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관계성($r=-.30, -.34, -.37, -.26, p<.001$), 유능성($r=-.26, -.34, -.30, -.21, p<.001$)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측정변수들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350)

cf. ⁺p<.10, *p<.05, **p<.01, ***p<.0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																
2	.29***	1															
3	.51***	.46***	1														
4	.18***	.28***	.34***	1													
5	.35***	.27***	.51***	.22***	1												
6	.59***	.30***	.63***	.22***	.47***	1											
7	.29***	.14**	.19***	.25***	.12*	.25***	1										
8	.31***	.10	.24***	.24***	.15**	.23***	.80***	1									
9	.28***	.10	.22***	.26***	.16**	.24***	.81***	.79***	1								
10	.30***	.10	.22***	.26***	.16**	.24***	.81***	.76***	.84***	1							
11	.03	.01	.09	.11 ⁺	.09 ⁺	.03	.19***	.26***	.25***	.21***	1						
12	.05	-.02	.08	.12 ⁺	.05 ⁺	.07	.22***	.29***	.30***	.20***	.70***	1					
13	.16**	.03	.13 ⁺	.18***	.06	.07	.41***	.45***	.54***	.42***	.55***	.54***	1				
14	.01	-.04	.06	.10 ⁺	-.01	.02	.20***	.22***	.22***	.14**	.67***	.66***	.57***	1			
15	-.24***	-.16**	-.22***	-.24***	-.20***	-.18***	-.39***	-.44***	-.51***	-.40***	-.21***	-.26***	-.31***	-.21***	1		
16	-.07	-.02	-.08	-.11 ⁺	-.09 ⁺	-.05	-.26***	-.34***	-.30***	-.21***	-.32***	-.35***	-.30***	-.36***	.59***	1	
17	-.11 ⁺	-.18***	-.20***	-.22***	-.13 ⁺	-.08	-.30***	-.34***	-.37***	-.26***	-.41***	-.48***	-.44***	-.48***	.55***	.67***	1
M	1.55	1.33	1.46	1.21	1.36	1.53	2.96	2.70	2.52	2.82	3.63	3.52	2.57	2.98	4.44	4.23	4.65
SD	0.44	0.61	0.54	0.47	0.51	0.58	1.13	1.25	1.24	1.31	1.14	0.98	0.97	1.02	0.92	0.90	0.88
왜도	.89	1.80	1.61	2.95	1.78	1.27	.32	.60	.65	.43	1.05	.09	.53	.37	-.02	-.20	-.36
첨도	.74	2.77	2.87	9.88	3.53	1.36	-.32	-.23	-.12	-.53	7.65	-.14	.23	.06	-.91	-.15	-.29

주.1.일상생활장애 2.긍정적기대 3.급단 4.가상적대인관계지향성 5.일탈행동 6.내성 7-10.불안에착1-4 11-14.회피에착1-4 15.자율성 16.유능성 17.관계성

반면 회피 애착1, 2, 3, 4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 변수는 관계성 ($r=-.41, -.48, -.44, -.48, p<.001$)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유능성 ($r=-.32, -.35, -.30, -.36, p<.001$), 자율성 ($r=-.21, -.26, -.31, -.21, p<.001$)이었다. 한편 자율성은 인터넷 중독의 하위요인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긍정적 기대를 제외한 모든 인터넷 중독의 하위요인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 ($r=-.24, -.22, -.24, -.20, -.18, p<.001$)을 보였다. 반면, 관계성과 유능성은 인터넷 중독의 하위요인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측정변수들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 수치를 살펴본 결과 (표8), 왜도는 3보다 작고 첨도는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변수들이 충분한 정상분포를 보이고 있어, 구조 방정식 모형을 분석할 수 있다.

2) 측정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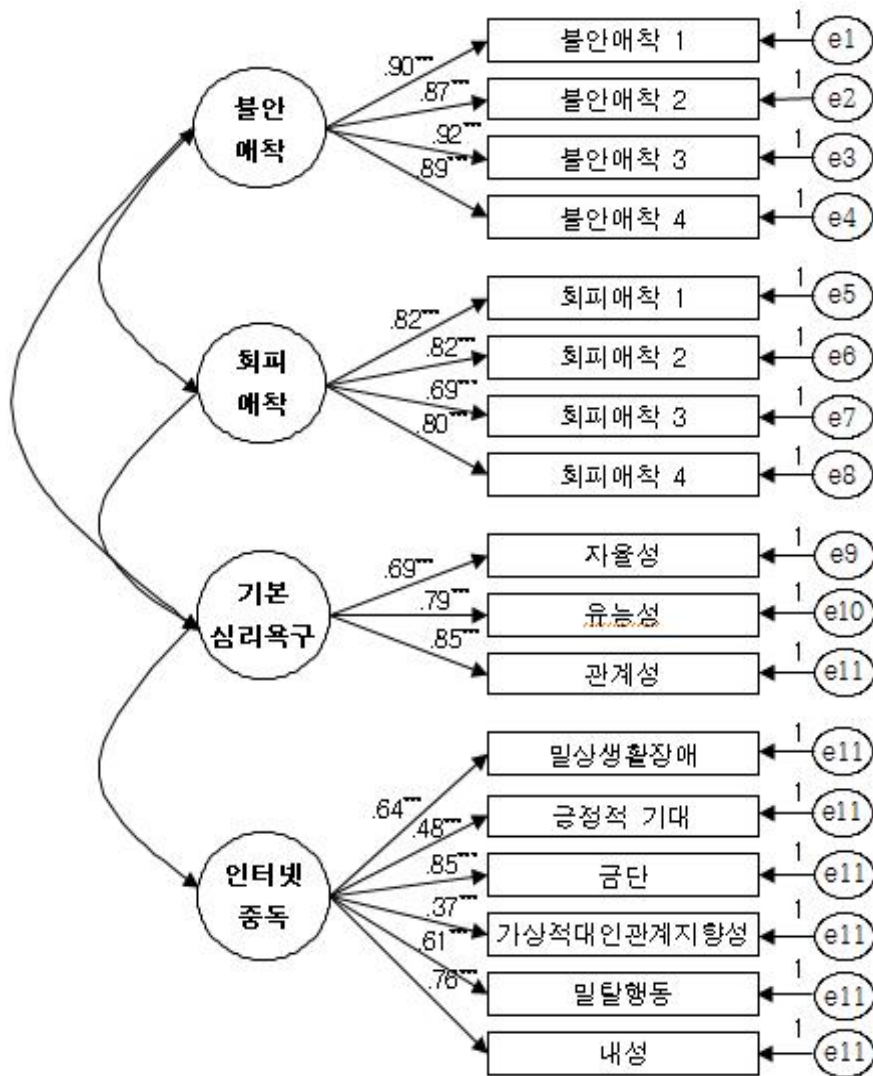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매개모형이다. 이에 따라 예측변수는 불안·회피 애착, 준거변수는 인터넷 중독, 매개변수는 기본심리욕구로 설정하여 총 4개의 잠재변수가 있다. 그리고 각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수는 불안·회피 애착 각각 4개, 기본심리욕구 3개, 인터넷 중독 6개로 이루어져 있다(그림4).

<표 9>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N=350)

적합도 지수	$\chi^2 (df)$	χ^2/df	TLI	CFI	RMSEA [90%CI]
측정모형	379.49*** (115)	3.30	.91	.92	.08 [.07-.09]

cf. $p^+<.10, *p<.05, **p<.01, ***p<.001$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9>에 제시된 것과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고 있으므로, 구조모형을 검증할 수 있다. 각 측정변수들의 모수 추정치는 <표10>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 측정모형의 요인계수(표준화계수)

<표 10>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N=350)

잠재 변수	측정 변수	B	β	S.E	C.R
	일상생활장애	1.00	.64***		
	긍정적 기대	1.04	.48***	.22	4.67
인터넷	금단	1.64	.85***	.26	6.37
중독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60	.37***	.16	3.83
	일탈행동	1.11	.61***	.19	5.71
	내성	1.63	.76***	.17	9.48
불안	불안애착1	1.00	.90***		
	불안애착2	1.06	.87***	.04	24.12
애착	불안애착3	1.12	.92***	.05	24.63
	불안애착4	1.14	.89***	.05	25.45
	회피애착1	1.00	.82***		
회피	회피애착2	.86	.82***	.05	17.91
애착	회피애착3	.71	.69***	.06	12.17
	회피애착4	.87	.80***	.05	17.16
기본	자율성	1.00	.69***	.00	
	유능성	1.12	.79***	.10	10.84
심리욕구	관계성	1.17	.85***	.13	9.10

cf. $p^+ < .10$, $*p < .05$, $**p < .01$, $***p < .001$

4. 구조모형 분석

1) 구조모형 검증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115, N=350) = 379.49, p < .001$, TLI = .91, CFI = .92, RMSEA = .08(90% Confidence Interval[CI] = .07, .09)로 나타났다(표11). 구체적으로 χ^2/df 값이 3.30으로 5보다 작으며, TLI와 CFI 값이 .90이상이고, RMSEA의 값도 .08이라는 괜찮은 적합도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11>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N=350)

적합도 지수	$\chi^2 (df)$	χ^2/df	TLI	CFI	RMSEA [90%CI]
연구 모형	379.49*** (115)	3.30	.91	.92	.08 [.0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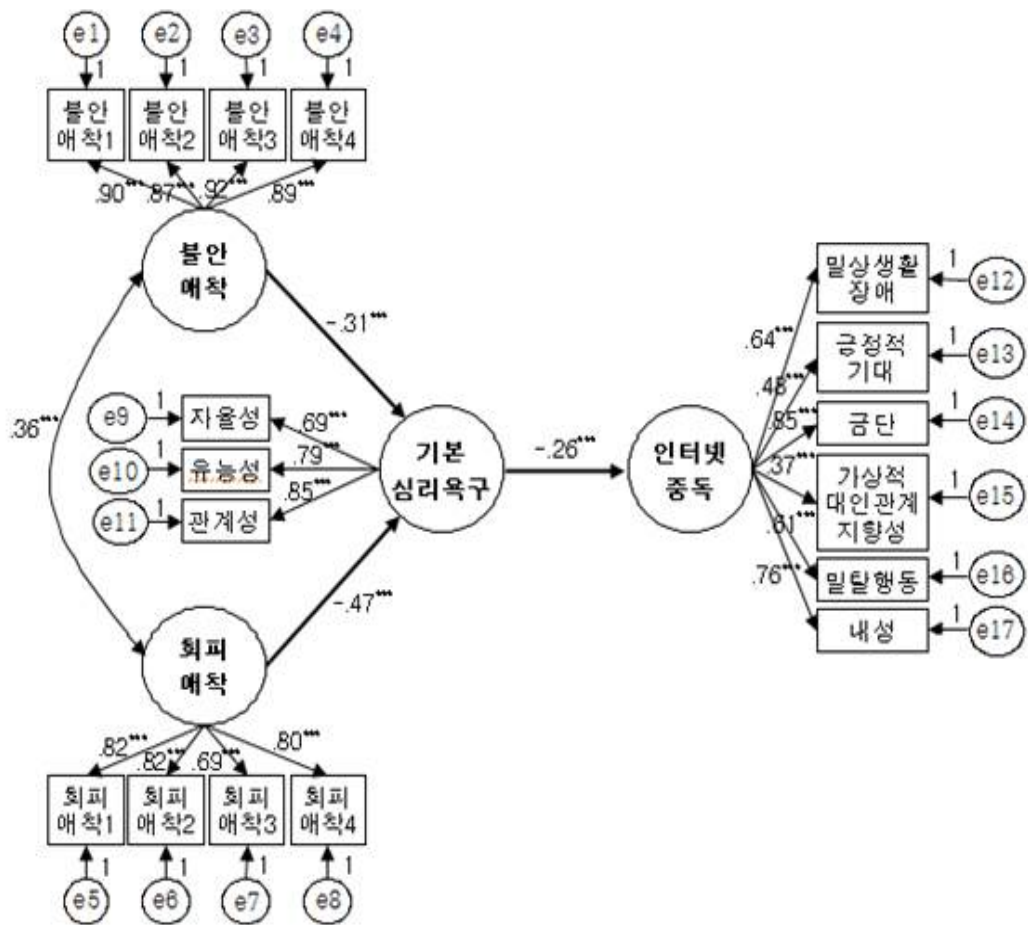
cf. $p^+ < .10$, $*p < .05$, $**p < .01$, $***p < .001$

적합성이 검증된 최종모형을 바탕으로 각 변인들에 대한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그림5>에 제시된 것과 같이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불안 애착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에는 기본심리욕구 수준이 .31단위만큼 감소하였고($\beta = -.31$, $S.E = .05$, $p < .001$), 회피 애착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에는 기본심리욕구 수준이 .47단위만큼 감소하였다($\beta = -.47$, $S.E = .04$, $p < .001$). 그리고 기본심리욕구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 수준이 .26단위만큼 감소하였다($\beta = -.26$, $S.E = .03$, $p < .001$). 즉, 불안·회피 애착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심리욕구의 수준이 감소하고, 기본심리욕구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불안·회피 애착이 기본심리욕구에, 기본심리욕구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각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어, [연구문제3]에 대한 가설 3-1 및 3-2가 지지되었다.

<표 12>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치 (N=350)

경로	B	β	S.E	C.R
불안애착 → 기본심리욕구	-.19	-.31***	.05	-3.91
회피애착 → 기본심리욕구	-.32	-.47***	.04	-8.20
기본심리욕구 → 인터넷 중독	-.11	-.26***	.03	-3.86

cf. $p^+ < .10$, $*p < .05$, $**p < .01$, $***p < .001$



<그림 5> 최종모형의 경로계수(표준화계수)

2) 매개효과 검증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10,000개의 표본을 지정한 Bootstrapping 절차를 실시하였다(서영석, 2010).

<표 13> 매개 효과 검증 (N=350)

효과	경로	β	S.E	95% CI
직접 효과	불안애착 → 기본심리욕구	-.31***	.05	-.30, -.11
	회피애착 → 기본심리욕구	-.47***	.04	-.40, -.25
	기본심리욕구 → 인터넷 중독	-.26***	.03	-.18, -.06
간접 효과	불안애착 → 기본심리욕구 → 인터넷 중독	.08**	.03	.01, .04
	회피애착 → 기본심리욕구 → 인터넷 중독	.12***	.03	.02, .06

cf.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 결과는 <표13>에 제시된 것과 같이 모든 간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95% 신뢰구간(.01-.04)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불안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8$, $S.E=.03$, $p < .01$). 또한 95% 신뢰구간(.02-.06)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회피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12$, $S.E=.03$, $p < .001$). 이에 따라 불안·애착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하여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연구문제3]에 대한 가설 3-3이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각 변수들의 효과를 종합하여 <표14>에 제시하였다.

<표 14> 인터넷 중독에 대한 효과의 보고 (N=350)

예측 변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불안애착		.08	.08
회피애착		.12	.12
기본심리욕구	-.26		-.26

VI. 논의 및 제언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사회적·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불안·회피 애착, 기본심리욕구,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 기본심리욕구, 인터넷 중독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넷 중독 수준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인터넷 중독 고위험 집단(잠재적 위험군 및 고위험군에 해당함)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인터넷 중독 저위험 집단(일반사용자군에 해당함)으로 분류하여 각 변인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았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 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구 대상자의 72.1%가 만 10세 이전에 인터넷을 최초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인터넷 실태 조사와 관련된 결과가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의 86.4%가 하루 평균 2시간미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터넷 중독 사용자군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 사용자군의 대다수인 89.1%가 2시간미만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에 위험 사용자군의 86.1%는 하루 평균 1시간에서 5시간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조사대상자들은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2.2시간인데 반해 인터넷 중독자는 2.6시간으로 더 많았으며, 이중 고위험 사용

자군은 3.2시간으로 나타났다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의 조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 이용시간이 더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낸 선행연구(류진아, 김광웅, 2004; 이숙진, 2007)를 뒷받침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자 청소년의 39.2%는 인터넷을 통해 관계를 추구하는 메신저·동호회·개인 홈페이지를 주로 이용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의 55.9%는 게임 및 오락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험 사용자군 대상으로 살펴보면 메신저·동호회·개인 홈페이지 이용과 같은 관계추구유형이 42.9%, 게임 및 오락이 38.9%로 나타나, 위험 사용자군의 대다수가 대인관계나 오락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보다는 통신, 통신보다는 오락 용도로 인터넷을 이용할수록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김용택, 이진우, 양지혜(2008)의 연구결과처럼 인터넷 이용 유형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중학생의 불안·회피 애착이 기본심리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 수준이 낮게 나타나, 안정 애착이 형성될수록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Wei 등(2005), 황아람(2010), 이혜수와 이희경(2011), 장은숙(2012), 조영미와 이희경(2013), 김수진(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애착이 기본심리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애착과 기본심리욕구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불안 애착은 회피 애착보다 자율성에 대해 더 큰 상관의 크기를 보인 반면 유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작은 상관의 크기를 보였다. 그리고 회피 애착은 불안 애착보다 관계성에 대해 더 큰 상관의 크기를 보인 반면 자율성에 대해서는 보다 작은 상관의 크기를 보였다. 이는 불안 애착이라는 차원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반영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불안 애착이 형성된 경우에는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고 있다(Bartholomow & Horowitz, 1991). 이로 인해 자신이 행동의 주체로서 행동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낮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Wei 등, 2005; 황아람, 2010; 이혜수, 이희경, 2011). 또한 불안 애착이 형성된 경우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그 안에서 자존감 및 효능감을 느끼기 때문에 회피 애착이 형성된 경우에 비해 유능감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회피 애착이 형성된 경우에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반면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고 있다(Bartholomow & Horowitz, 1991). 이로 인해 최대한 타인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며 자신이 행동의 주체로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은 높은 반면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관계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Wei 등, 2005; 황아람, 2010; 이혜수, 이희경, 2011). 따라서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애착을 증진시키는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착 차원을 파악하여 불안 애착이 형성된 경우에는 자율성, 회피 애착이 형성된 경우에는 관계성에 대해 보다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타인인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고 증진시키는 양육 방법, 의사소통 방식 등을 교육하는 부모 훈련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또한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타인이 될 수 있는 부모 외의 형제자매, 교사, 또래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증진시키는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본심리욕구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본심리욕구 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나,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될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서준호와 이희경(2012), 이지혜(2012), 정민선 등(2012), 김효정 등(2013), 김

광일(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기본심리욕구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학업 및 경쟁 체계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놀이 문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은 현실에서 채우지 못한 욕구를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보상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김민정, 2010).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수단과 그 내부에 기저하고 있는 욕구로 분리하여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역시 인터넷이라는 수단과 그 내부에 기저하고 있는 욕구로 분리하여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 놓여있거나 이미 중독의 수준에 이른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결핍된 기본심리욕구들과 인터넷 이용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먼저 탐색할 필요가 있다(정민선, 김현미, 권현용, 2012).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현실에서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상담에서 내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내담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상담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자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비자발적인 특성이 강한 청소년 내담자들이 상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며 관계성을 충족시키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유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면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 자기결정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Deci & Ryan, 1985). 이러한 맥락에서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면 내재적 동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중독 행동에 있어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Arkowitz, Westra, Miller & Rollnick, 2008), 특히 청소년들의 비자발적인 특성을 변화시

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기강화상담 및 치료가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입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인터넷 중독에 대한 동기강화상담 및 동기강화인지행동치료의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어, 동기강화상담 및 동기강화인지행동치료가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정명희, 2006; 김남조, 2009; 이지혜, 2012).

한편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 중 자율성이 인터넷 중독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본 연구결과는 자율성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은영(2012), 김효정 등(2013)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문화권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재 동기가 낮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자율성을 제시하고 있다(김성수, 윤미선, 2012). 따라서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정해진 규칙이나 규율에 따르기를 강요하거나 비난과 체벌과 같은 방식으로 부정적인 통제를 하기보다는 수용적인 태도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기숙, 김경희, 2009).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터넷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인터넷 중독에 이르게 될 위험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이 시사된다.

넷째, 불안·회피 애착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하여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는 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었음을 밝혀낸 노지정(2008), 목점선(2004), 김서현(2012), 윤소정(2013)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의 연구를 통해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다는 사실(김한규, 2006; 최명구, 2009; 정다운, 2010)이 확인되었지만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및 개입의 일환으로 애착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심리욕구를 증진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애착을 증진시킴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및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단기적인 관점에서 동기강화상담 및 동기강화인지행동치료를 통해 비자발적인 특성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다(정명희, 2006; 김남조, 2009; 이지혜, 2012). 구체적으로 상담 및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선택적 과제 제시, 내담자의 의제 선택, 점진적인 과제 계획의 수립, 과제 수행에 따른 상담자의 긍정적 피드백, 상담자와의 신뢰로운 라포 형성 등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듯 상담 및 치료 장면에서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정, 학교, 또래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대상별 교육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심리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애착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및 치료 과정에서 재양육 등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상담자를 통해 안정된 애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나아가 일차적인 중요한 타인이라 볼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부모에게 양육 방법, 의사소통 방식 등을 교육하는 부모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부모로부터 의존적인 상태에서 분리되어 친구, 교사 등 관계 대상이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이차적으로 중요한 타인이 될 수 있는 부모 외의 형제자매, 교사, 또래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증진시키는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개입에 적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인터넷 중독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의 중학교 한 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집 대상이 국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인터넷 중독을 진단받아 임상군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는 자기보고식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을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부인(Denial)은 중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김동일, 이은아, 정여주, 김동민, 조영미, 2008). 실제로 이형초, 최윤경, 이순목, 반재천, 이순영(2006)의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을 진단하기 위해서 자기보고식 형태의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 응답자가 자신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증상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형태의 척도만으로 인터넷 중독을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이용자 본인의 자기보고식 평정 외에 심층면접이나 인터넷 이용자의 행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관찰할 수 있는 가족 및 교사의 관찰자 평정 등을 통해 인터넷 중독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기보고식 척도와 호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기보고식 척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응답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이형초 등, 2006). 나아가 상담을 의뢰한 가족들에게 인터넷 중독군으로 선별된 청소년에 대한 보다 통합되고 정확한 진단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이 가정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치료를 조력하도록 도울 수 있다(김동일 등, 2008).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으로 연구자가 연구가설에 따라 설정한 하나의 모형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단일모형이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어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하지만 단일모형을 검증할 경우에는 단일모형만을 평가하여 그 모형의 적합도가 좋으면 최종모형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대안모형의 선택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따라서 대안적 모형에 대한 가능성을 연구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기본심리욕구 외에 다양한 매개 변인을 설정하여 중학생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를 확인해본다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보다 풍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두 차원인 불안·회피 애착의 수준만을 살펴보았는데, 나아가 독립적인 두 차원의 조합으로 분류되는 애착 유형에 따른 인터넷 중독 및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로 확장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4가지 애착 유형(안정형, 몰입형, 거부형, 두려움형)에 따른 차이점이 입증된다면 애착 유형에 따라 개별적인 개입방법을 적용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애착 유형별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수준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나아가 인터넷 이용 유형에 따른 인터넷 중독 및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로 확장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예를 들어, 정영호(2013)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 유형(정보추구형, 관계추구형, 오락추구형)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 유형에 따른 인터넷 중독 수준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검증한다면 인터넷 이용 유형별로 개별적인 개입방법을 적용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인터넷 이용 유형별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여섯째, 본 연구는 일회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단기 연구로 자료 수집 당시 각 변인들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만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호관련성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이수진, 2008). 실제로 정영호(2013)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 시간 및 인터넷 이용 유형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이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수진(2009)의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은 변하지 않았고, 충동성, 인터넷 과다사용의 본인지각, 인터넷 과다이용 친구 수 및 인터넷 중독 성향은 감소하는 반면에 우울, 불안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종단 연구를 통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되는 변인들 간의 시간 누적적 효과, 즉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시사된다.

참 고 문 헌

- 곽소영, 손은정 (2008). 이성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충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77-195.
- 권재환 (2008). 국내 인터넷 중독 연구 동향- 학술지 게재논문 분석. 청소년학 연구, 15(3), 137-157.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광일 (2013).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기숙, 김경희 (2009).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변인. 아동간호학회지, 15, 24-33.
- 김남조 (2009).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동기강화 집단상담의 효과. 한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욱 (2001). 인터넷 이용충족, 플로우 및 개인적 성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동일, 이은아, 정여주, 김동민, 조영미 (2008).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찰자용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9(3), 1201-1214.
- 김동일, 정여주, 이은아, 김동민, 조영미 (2008). 간략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9(4), 1703-1722.
- 김민정 (2010). 인터넷 과다사용 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자중학생의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병직, 오경자 (2009).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우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의 탐색: 반추와 정서 억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357-375.

- 김서현 (2012). 청소년의 부모 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수, 윤미선 (2012). 자기결정성이론의 연구 동향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학연구, 50(4), 77-106.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진 (2013). 중년여성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아영 (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16(4), 169-187.
- 김아영 (2010). 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적용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24(3), 583-609.
- 김아영, 오순애 (2001). 자기 결정성 정도에 따른 동기 유형의 분류. 교육심리연구, 15(4), 97-119.
- 김용택, 이진우, 양지혜 (2008). 청소년이 생활환경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18(2), 29-55.
- 김은영 (2012).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의 세 가지 욕구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11-330.
- 김재희, 주은선 (2001). 부적응 청소년집단의 애착유형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07-125.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커뮤니케이션 북스.
- 김지형 (2002).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경향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비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문 (2012).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분노표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 대

- 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한규 (2006). 애착이 중학생의 대인관계 및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주 (2009).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분노표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효정, 안현숙, 이동만 (2013). 자기결정성 요인이 인터넷 중독 및 정보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게임형과 정보검색형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3(3), 207-228.
- 노지정 (2008). 부모 자녀 애착과 가족응집력이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진아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류진아, 김광웅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청소년상담연구, 12(1), 65-80.
- 목점선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애착·학교생활적응 및 자기통제력과 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선 (2008). 애착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준호, 이희경 (2012). 게임몰입과 게임중독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기본심리욕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11), 23-44.
- 설인실 (2004).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가정의 인터넷 사용 환경과의 관계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소은희, 신희천 (2011). 감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2(1), 159-175.
- 송원영 (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명숙, 조은주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감독과 통제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2), 339-351.
- 유성희 (2009). 성인여성의 애착유형과 중독성향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소정 (2013).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희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수진 (2008).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2), 175-192.
- 이숙진 (2007).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유경, 채규만 (2006). 컴퓨터 게임 중독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711-726.
- 이은경 (1992). 청소년기 모-자녀간의 애착이 자녀의 사회성과 학문적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은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애착, 자아방어기제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혜 (2012). 동기강화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인터넷

- 넷 중독, 자기통제력, 우울/불안,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혜 (2012). 현실에서의 기본심리욕구 충족 정도와 인터넷 과다 사용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덕, 홍혜영 (2011). 중학생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 성향 간의 관계: 외로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10), 271-294.
- 이형초, 최윤경, 이순목, 반재천, 이순영 (2006). 성인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96-595.
- 이혜수, 이희경 (2011). 초심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5), 1433-1449.
- 장은숙 (2012). 어머니의 성인 애착과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재홍, 김광현 (2009).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57-183.
- 장혜진, 채규만 (2006). 기술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휴대폰 사용 중독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839-852.
- 장휘숙 (1999). 성인기의 애착측정: 면접과 자기보고형 척도들에 관한 개관. 인간발달연구, 6(2), 147-168.
- 전춘애, 박철욱, 이은경 (2008).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상담학연구, 9(2), 709-726.
- 정다운 (2010).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 청소년문화포럼, 24, 136-161.
- 정명희 (2006). 동기강화인지행동치료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민선, 김현미, 권현용 (2012). 청소년의 기본욕구충족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대처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20(1), 159-174.

정여주 (2005). 청소년 인터넷 중독 모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영호 (2013).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2), 309-350.

조민자 (2011). 우울, 불안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성일 (2011).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서의 애착형성과 충동성-주의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조영미, 김동민, 송경수, 유지현 (2009). 청소년 인식에 의한 인터넷 중독의 원인 탐색 : 개념도 접근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1), 469-483.

조영미, 이희경 (2013).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과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227-1245.

조일주 (2009).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휴대폰 중독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1), 185-204.

조화진, 서영석 (2011).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기본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71-490.

채진선 (2007).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청소년기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명구 (2009). 청소년의 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안녕감과 인터넷 중독에

-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옥현, 김봉환 (2007).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3), 1063-1084.
- 한상희 (2005).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대인불안 및 우울과의 관계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소영, 신희천 (2010).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경험과 상담성과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901-929.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아람 (2010).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lex, S. Hall, & Jefferey Parsons (2001). *Internet Addiction: College Student Case Study Using Best Practices in Cognitive Behavior Therapy*.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3, 312-327.
- APA (2000). *DSM-IV-TR*. APA.
- Arkowitz, H., Westra, H. A., Miller, W. R., & Rollnick, S. (2008). *Motivational Interviewing in the Treatment of Psychological Problem*.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andura, A. (1996).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York: W. H. Freeman.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226-244.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Psychoanalysis, 39, pp. 350-37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1.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46-76)*.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273-308)*.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avis, R. A. (2001). *A cognitive-behavior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PIU)*. Computer in human Behavior, 17, 187-195.
-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109-134.
- Deci, E. L., & Ryan, R. M. (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gration in personality.* In R. Diestbier(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erspectives on motivation, 38, 237-288.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Eccles, J. S., & Midgley, C. (1990). *Change in academic motivation and self-percep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p. 134-155).*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Fenzel, L. M. (2000). *Prospective study of change in global self-worth and strain dur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 93-116.
- Flores, P. J. (2004). *Addiction as an attachment disorder.* NY: Jacon Aronson.
- Fraley, G. C., Waller, M. T., & Brennan, A. C. (2000).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Disorder.*
<http://www.cog.brown.edu/brochure/people/duchon/humor/internet.addiction.html>.
-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430-435.
- Griffiths, M. D.(1999). *Internet Addiction: Fact or fiction.* The Psychologist, 12(5), 246-251.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Izard, C. E., Haynes, O. M., Chisholm, G., & Baak, K. (1991). *Emotional determinant of infant-mothers attachment.* Children Development, 62, 906-917.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Thir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raut, R., & Patterson, M. (1998). *Internet Paradox: The generality and dynamics of conceptual tempo.*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1, 17-24.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1, Serial No. 209), 66-106.
- Manfred Spitzer (2013). 디지털 치매, 머리를 쓰지 않는 똑똑한 바보들(김세나 역). 북로드.
- Orzack, M. H., & Orzack, D. S. (1999). *Treatment of computer addicts with complex co-morbid psychiatric disorders.* Cyberpsychology & Behavior, 2(5), 465-473.

- Papini, D. R., & Roggman, L. A.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257-275.
- Papini, D. R., Roggman, L. A., & Anderson, J. (1991). *Early-adolescent perceptions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A test of emotional-distancing and buffering hypothese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258-275.
- Pietromonaco, P. R., & Feldman Barrett, L. (2000). *The internal working models concept: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the self in relation to other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 155-175.
- Roser, R. W., van der Wolf, K., & Strobel, K. R. (2001).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emotional and school functioning during early adolescence Preliminary finding from Dutch and American sampl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2), 111-139.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y*, 55(1), 68-78.
-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3-33.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yan, R. M., & Grolnick, W. S. (1986). *Origins and pawns in the classroom: Self-report and projective assessmen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precep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50-558.

- Ryan, R. M. (1995). *Psychological needs and the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3, 397-427.
- Ryan, R. M., Deci, E. L., Grolnick, W. S., & La Guardia, J. G. (2006). *The significance of autonomy and autonomy support in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Theory and method, 2nd ED.* 795-849.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Ryan, R. M., Kuhl, J., & Deci, E. L. (1997). *Nature and autonomy: organizational view of social and neurobiological aspects of self regulation in behavior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nd Psychology*, 9, 701-72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 *Psychological method*, 7, 422-445.
- Suler, J. (1996). *Cyber and Cyberspace Addiction*. [Http://www.rider.edu/suler/psycyber/cyberaddict.html](http://www.rider.edu/suler/psycyber/cyberaddict.html).
- Waters, E., & Cummings, B. M. (2000). *A secure base from which to explore close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71, 164-172.
- Wei, M., Shaffer, P. A., Young, S. K.,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hame, depression, and loneliness: The mediation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91-601.
- Widyonto, L., & Griffiths, M. (2006). *Internet Addiction: A Critical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4, 31-51.
- Young, K. S. (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 899-902.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 VadeCreek, L. & Jackson, T(Eds). *Innovation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pp. 19-31).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서울특별시청(2012).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09년-11년 이용 청소년 대상 상담 내용 분석 순위. 서울특별시청.

세계일보 (2011). “부모와 애착관계 불안정할수록 알코올, 인터넷 중독 쉽게 빠져”. 박태해 기자, 3월 3일자.

아이뉴스24 (2004). KT 인터넷 서비스 10년사(史). 김현아 기자, 6월 20일자.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스마트미디어중독 특성 및 중독 해소 개입 전략 개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2011).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의 실태 및 개선과제. 청소년 희망센터 희망소식 2, 한국청소년상담원.

헬스조선 (2013). 스마트폰에 빠진 우리 아이 뇌는 ‘팝콘 브레인’. 이금숙 기자, 3월 20일자.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Internet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Yeong-Seon Jo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elations among anxious · avoidant attachment,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internet addiction.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whether basic psychological needs play mediating roles between anxious · avoidant attachment and internet addiction. Three-hundred fifty middle school students residing in Seoul city completed self-reports about Internet Addiction Scale Proneness Scale-Short Form(KS scale), Attachment Scale(ECRS-R), Korea Vers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for Adolescents. SPSS 18.0 and M-plus 5.0 programs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n addition, Bootstrapping analysis was conducted for verifying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s. The important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anxious · avoidant attachment and internet addict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basic psychological needs, while anxious · avoidant attachment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net addiction. Second, anxious · avoidant attachment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basic psychological needs. Additionally, basic psychological need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internet addiction. Third, basic psychological needs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between anxious · avoidant attachment and internet addiction. Finally, som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in this study are discussed. Suggestion of future study are also presented as well.

Key Words: Internet Addiction, Anxious Attachment, Avoidant Attachment, Basic Psychological Needs, Mediating Effects

부 록

<부록 1>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

<부록 2> 기본 정보 관련 질문지

<부록 3> 인터넷 이용 관련 질문지

<부록 4> 인터넷 중독 질문지

(간략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 KS 척도)

<부록 5> 애착 질문지

(친밀한 관계경험 척도: ECRS-R 척도)

<부록 6> 기본심리욕구 질문지

(한국형 청소년 기본심리욕구 척도: Korea Vers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for Adolescents)

<부록1>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채규만 교수 지도하에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석사학위 논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중학생 여러분에게 본 설명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지에 작성된 귀하의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질문에 응답한 자료는 학문적 연구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연구 윤리 방침을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연구 참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법적 미성년자이므로 학생 본인과 더불어 학생의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동의서에 학생 본인과 학생의 법적 보호자(부모님 및 친인척) 모두 연구에 참여하길 원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지도교수 : 채 규 만(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자 : 조 영 선(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E-mail : jo_oseon@naver.com

“위에 기술된 연구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본인 및 법적 보호자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연구 참여자 본인 (학생): 반 _____ 번호 _____

성 명 (이 름)

서 명 (사 인)

날 짜 (년/월/일)

* 연구 참여자 법적 보호자 (부모님 및 친인척)

성 명 (이 름)

서 명 (사 인)

날 짜 (년/월/일)

질 문 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질문지는 중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학술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옳은 답이나 그른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평소 생각과 느낌 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솔직한 답변은 연구 자료의 정확한 분석에 큰 도움이 되오니,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 작성에는 약 15-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응답 요령은 해당될다고 생각하는 곳에 ✓ 체크해주시고, 반드시 한 문항에 한 가지 답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본 질문지에 작성된 귀하의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이 자료는 학문적 연구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지도교수 : 채 규 만(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자 : 조 영 선(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E-mail : jo_oseon@naver.com

<부록2> ◎ 다음은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빈칸을 작성하거나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하주세요.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한 문항에 하나의 응답만 선택 하세요.

1. 반, 번 호: _____ 반 _____ 번

2. 나이(연령): 만 _____ 세

3. 성 별: ① 남 자 ② 여 자

4. 학 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부록3> ● 다음은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빈칸을 작성하거나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해주세요.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한 문항에 하나의 응답만 선택하세요.

1.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① 30분 미만 ②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⑤ 5시간 이상

2. 주로 어떤 용도로 인터넷을 이용하나요?

- ① 전자우편(E-mail) ② 채팅 및 메신저 ③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④ 개인 홈페이지(미니홈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활동
 ⑤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⑥ 학습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영화파일 등) 이용
 ⑦ 인터넷 상거래 및 쇼핑 ⑧ 게임 및 오락 ⑨ 성인 사이트 이용

3. 언제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하였나요?

- ① 만 3세 이전 ② 만 4-6세 ③ 만 7-9세 ④ 만 10-12세 ⑤ 만 13-15세

<부록4> ● 다음은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각 내용에 본인에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숫자를 선택하여 ✓표시를 해 주세요. 실제 자신이 해본 경험이 없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한 문항에 하나의 응답만 선택하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3.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인터넷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5.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시력 등에 문제가 생겼다.	①	②	③	④
6. 다른 할 일이 많을 때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7.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8.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9.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10.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1. 인터넷을 할 때 누군가 방해를 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12.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다.	①	②	③	④
13.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①	②	③	④
14. 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15.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6. 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①	②	③	④
17.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18.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19.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①	②	③	④
20.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①	②	③	④

<부록5> ● 다음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자신의 일반적인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각 내용에 본인에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숫자를 선택하여 ✓표시를 해 주세요. 실제 자신이 해본 경험이 없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한 문항에 하나의 응답만 선택하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때때로 다른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 없이 나에게 대한 감정을 바꾸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비교적 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화나 있을 때만 나에게 주목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다른 사람들은 나 자신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버림받을까봐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에 대해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큼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1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애정과 지지(격려)를 보내주지 않을 때는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표현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호감을 보이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다른 사람들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것이 편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회의(의심)를 하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호감만큼 그들도 내게 강한 호감을 가지기를 자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대해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매우 가까워지고 싶은 나의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지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걱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다른 사람들이 잠시 떠나 있으면 그들이 나 아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될까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매우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나는 가정이나 문제가 생기면 보통 다른 사람들과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다른 사람들이 내게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록6> ◎ 다음은 평소 일상생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각 내용에 본인에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숫자를 선택하여 ✓표시를 해 주세요. 실제 자신이 해본 경험이 없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한 문항에 하나의 응답만 선택하세요.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제받고 억압을 받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내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많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일상생활에서 나는 자주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대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처리 방식을 따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대부분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일을 잘 한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하는 것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내 주변 사람들과 나는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내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 나와 감정을 공유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